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三千里 錦繡江山이라고 부르리 만치 비단에 수를 놓은 듯한 아름답고 경치좋은 살기좋은 곳으로 알려져 왔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한가운데 山中의名山인 金剛山이 자리잡고 南北으로 白頭山, 妙香山, 智異山, 漢拏山과 같은名山이 있고 그溪谷으로 江이 흘러 수려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中에서도 金剛山 1萬2千峰은 春夏秋冬季節마다 風景이 달라서 봄에는 金剛山, 여름은 蓬萊山, 가을은 楓嶽山, 겨울은 皆骨山이라는 異名으로 불려지고 山間的 氣流의 變化는 아침저녁으로 경치가 바뀌어 한쪽의 東洋畫를 연상케 하는 絶景을 이루는 것이다.

金剛山은 그 景致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靈山으로서 神聖함과 엄숙함이 있어 過去 많은 哲人과 修道僧이 修養, 修道의 聖地로서 이곳을 찾았다.

그러므로 金剛山 1萬2千峰에는 8萬9庵子 가 있다는 말과 같이 많은 寺刹과 암자가 조화를 이루어 觀光地로서 널리 世上에 알려져 왔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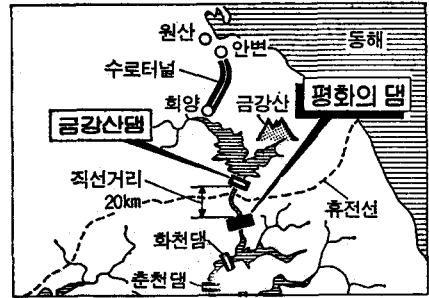
옛적에 이 아름다운 金剛山의 절경을 전해들은 中國의 詩人 蘇東坡는

願生 高麗國

一見 金剛山

이라고 읊었다.

원컨대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다」고 金剛山 보기를 평생의 염원으로 삼았고 日本人들은 「金剛山을 보기 전에는 山水를 말하지 말라」는 格言이 있으리만치 世界的 名勝地로서 손꼽아 왔다.



奇岩絶壁이 솟아있는 곳에 1,000미터 2,000미터의 깊은 계곡을 이루어 여기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交響樂으로서 조화되어 詩人墨客의 詩興을 자아내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放浪詩人 김삿갓(金炳淵)은 竹杖에 삿갓쓰고 三千里를 방랑하며 金剛山에 이르러
松松栢栢 岩岩廻
水水山山 處處奇

라는 名詩를 남겨 놓았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바위를 돌고 있고 물과 산은 곳곳마다 기이하다.

諧謔적이고 간결한 金笠의 詩情속에 산과 물과 나무와 바위가 조화를 이룬 金剛山의 경치를 눈앞에 보는 듯 하다.

그 밖에도 崔南善의 金剛山禮讚이나 李光洙의 金剛山遊記, 李殷相의 祖國江山등은 金剛山의 절경과 더불어 不朽의 名作으로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 ×

그러나 이 名勝地가 역사의 장난이라고나 할까 魔의 휴전선으로 말미암아 共産帳幕속에 가려져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만일 金剛山이 우리의 영역에 있었다면 일찌기 觀光資源으로 개발되어 世界的인 名勝地로서 각광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같은 名所를 지척에 두고 가보지도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北韓에서는 여기에다 댐을 막아서 국토와 자연을 파괴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北漢江 上流 任南지역에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金剛山댐은 높이 200m, 길이 1.1km에



유역면적 2,200Kha, 저수량은 200億 톤에 달하며 金剛山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 發電所를 건설하고 동해안 지역의 농공업용수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북한측이 댐을 완공하고 만일 水門을 개방하면 9億톤의 물이 쏟아져 북한강 유역 13개 市郡이 洪水피해를 당하게 되며 또한 人爲의이거나 自然的으로 댐이 붕괴될 경우 200億톤의 물이 그대로 밀려 내려오면 우리 國土는 수도권까지 수몰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러므로 金剛山댐은 위치적으로나 규모로 볼 때 단순한 에너지 개발이나 水資源의 활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타격을 주려는 水攻戰略의 軍事目的이 숨어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북한측에서는 그동안 우리의 경고와 국제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에너지개발이라는 美名下에 경제성이 별로 없는 댐을 막아서 攻水作戰을 기도하는 북한의 음모는 에너지資源의 平和的 利用을 強調하고 있는 世界에너지會議(WEC)의 基本目的에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이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 이를 저지하는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金剛山댐을 水攻用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겨레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음모에 대처하는 平和의 댐 축조에 착수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마음의 고향인 金剛山의 자연과 國土를 보존하고 겨레의 안전을 수호하는

길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세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 × ×

지난 날 김삿갓은 科擧에서 洪景來亂을 진압하지 못한 宣川府使의 不忠을 꾸짖는 詩를 지어 壯元及第를 하였으나 그것이 자기의 祖父 金益淳이었음을 뒤늦게 알고 벼슬길을 버리고 일생을 방랑길로 나섰다.

이때 金剛山을 두루 살펴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謳歌한 詩를 10餘篇이나 남겨 놓았는데 김삿갓이 오늘의 북한의 음모를 예지로서 간파하였을까…?

그는 金剛의 경관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詩로서 경고하였다.

若捨 金剛景
青山 皆骨餘

其後 騎驢客
無興 但躊躇

금강산의 이 아름다운 경치를
만약에 누가 해친다면
푸른산 맑은물은 간데없고
빼만 앙상하게 남으리라.

그후에 나귀를 타고

이 산을 찾아오는 나그네가
무슨 흥이 생겨서 쉬겠는가.

저마다 주저하며 탄식하리라.

金剛山의 경관에 심취된 風流詩人 김삿갓은 돌하나 나무 한 그루라도 버리지 말 것을 후세의 우리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면서 흰구름 뜬 고개를 넘어갔을 것이다. (暢)